환자 이송·대피 훈련 15일 오후 2시부터 20분동안 제377차 민방공 대피훈련이 전국적으로 실시된 가운데 광주시 북구 운암1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환자이송과 대피훈련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월 창작 가요제 열린다

5·18 30주년 행사 윤곽…전국 화가 100명 '5월 전시회'도

'횃불 시국선언' 재연

5·18 민중항쟁 30주년을 맞아 올해 처음으로 오월 창작 가요제와 전국 각지의 화가 100명이 참여하는 전시회가 열린다. 1980년 당시를 재연해 현대와 만나는 '횃불 시국선언' 재연, 북한주민돕기 장터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됐다.

15일 '5·18 민중항쟁 제 30주년 기념행사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24일부터 5월31일까지 광주·전남,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들리는가! 오월의 함성, 보이는가! 민중의 횃불'이라는 주제로 기념·문화, 정신계승, 추모, 6·15 10주년 등 다양한 분야의 행사들이 개최된다.

17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30주년 행사의 기념·문화행사로는 '제1회 전국 오월 창작 가요제'와 '5월 전시회' 등이 대표적이다. 창작가요제는 전국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5월의 노래를 통해 오월 정신의 의미를 되새기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전시회에는 100명 이상의 전국 화가·사진작가들의 5월 관련 작품이 선을 보인다.

■5·18 민중항쟁 30주년 기념행사 계획(안)

기념·문화 행사	제 1회 전국 오월 창작 가요제, 오월 전시회
정신 계승 행사	민주 대성회 옛 전남도청 앞 재연, 광주·전남 역사기행
추모 행사	전야제, 추모제, 기념식
6·15 10돌 연계행사	5·18 사적지 걷기 대회, 북한 주민 돕기 아름다운 가게 운영
시민 참여형 행사	민주·인권 골목 만들기, 시민 아이디어 공모
시국 행사	노동자(금호타이어 문제)·학생(등록금 문제)·농민(쌀값 보장) 등 시국 행사

또 정신계승 행사로 재야 인사와 학생들에 의해 1980년 5월 14·15일 이틀간 옛 전남도청 분수대 앞에서 열린 횃불 시국선언을 기념하는 '민족 민주 대성회 재연'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 행사가 끝난 뒤 노동자·학생·농민 등 각계 각층의 시국 선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또 6·15 10주년과 연계하기 위해 '5·18 사적지 걷기대회'와 '북한 주민 돕기 5·18 아름다운 장터'도 개설된다. 올해 첫 시도되는 이 행사는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자는 의미에서, 수익금 전액이 북한 주민에게 전달된다. 또 준비위원회는 5·18 30주년 기념행사에 전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행사 아이디어를 공모할 예정이다.

'준비위원회는'는 18일 공동대표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행사안을 최종 확정한 뒤 24일 '30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출범식을 갖는다.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5·18 민중항쟁의 가치 재정립과 5월 정신 계승에 초점을 둔 시민주도형 추모행사로 진행할 것"이라며 "과거 기념행사가 광주 한 곳에만 집중됐다면 올해에는 대상 지역을 확대해 전국 단위의 추모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교육청 'IT영재교육' 스타트

연말까지 116명 무료교육

광주지역 학생들의 정보통신(IT) 재능을 조기발굴, 육성하기 위한 IT 영재교육이 15일 개강식을 하고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간다.

광주시교육청은 IT영재로 선발된 초등 72명, 중학생 44명 등 모두 116명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무료로 영재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은 기본과 심화반 등 수준별로 편성돼 매주 3일씩 출석과 원격수업으로 12월 중순까지 진행된다. IT 영재교육은 교육정보원의 핵심 교육과정중 하나로 2003년 개원부터 시작돼 현재 498명의 IT영재를 배출했다.

주요 교육과정은 프로그래밍, 논리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이산수학, 알고리즘 IT관련 영어 및 프리젠테이션, 창의성 신장 프로그램, 프로젝트 수행 및 구현, 현장체험 등으로 짜여져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목포해경 첫 하이브리드형 경비함

'태평양 9호' 임무수행 "굿"

불법 中어선 4척 나포

목포 해경의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hybrid)형 경비함인 '태평양 9호'가 지난 10일 해역에 배치된 이후, 작전시마다 불법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등 탁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10일 첫 임무수행을 위해 출항한 목포해양경찰(서장 최재평) 최신예 3천t급 하이브리드형 '태평양 9호'는 2차례 작전에 투입돼 4척의 불법 중국어선을 잇따라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태평양 9호'는 14일 오전 9시께 신안군 홍도 북서방 70km해상(EEZ내측 33km)에서 중국 석도선적 68t 쌍끌이저인망 어선 노영어호 등 2척을 어획물 허위기재 및 축소기재 혐의로 나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오후 7시께 신안군 홍도 북서방 40km해상(EEZ내측 60km)에서 중국 석도선적 95t 쌍끌이저인망 어선 노영어호 등 2척을 이중자루그물사용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했다.

해경 관계자는 "하이브리드형 경비함은 운항 속도가 비슷한 규모의 함정보다 시속 20㎞가량 빠를 뿐만 아니라 소화포를 갖추고 있어 불법 어선 단속에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이브리드 경비함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원리에 착안해 12노트(시속 21.6㎞) 이하 저속운항시에는 전기모터를, 그 이상 고속운항시에는 디젤엔진을 가동해 소음을 줄임과 동시에 연료절감효과를 볼 수 있는 함정이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장성 모 골프장 인근 저수지 물고기 500여 마리 '떼죽음'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임정저수지 상류 하천과 인근 논, 저수지 등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

지난 12일 낮 임정 저수지 상류 폭 5m, 수심 30㎝ 가량의 하천에서 빙어 등 물고기 500여 마리가 죽은 채 수면으로 떠올라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장성군청에 신고했다. 떼죽음을 당한 물고기는 임정 저수지 곳곳과 인근 논에서도 발견됐다.

물고기가 죽은 채 발견된 하천이나 저수지, 논 등은 인근 P골프장과 불과 200m 떨어져 있어 주민과 환경단체 관계자 등은 물고기 떼죽음이 이 골프장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장성군지회 유종성 지회장은 "상류에 이렇다 할 오염원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 등 이물질이 최근 빗물을 타고 인근을 오염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P골프장 관계자는 "지난 6일 살충제를 뿌렸는데 일주일 가까이 지난 후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것을 골프장 잘못으로 몰아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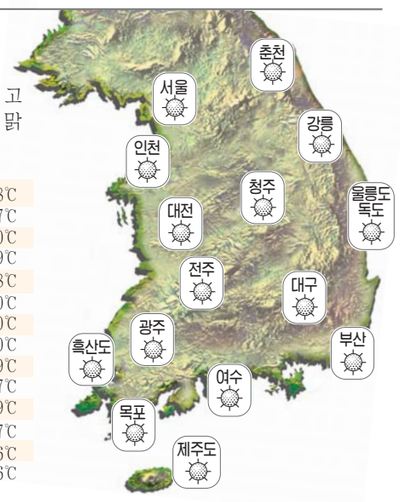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43분 해짐 18시 40분 달뜸 06시 28분 달짐 19시 10분

올듯 말듯한 봄

중국 중부지방에 중심을 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다.

광 주	구름 조금	2/8℃
목 포	구름 조금	3/7℃
여 수	구름 조금	4/10℃
완 도	구름 조금	2/9℃
구 례	구름 조금	2/8℃
해 남	구름 조금	2/10℃
장 흥	구름 조금	2/10℃
고 흥	구름 조금	3/10℃
순 천	구름 조금	3/9℃
영 광	구름 조금	1/7℃
진 도	구름 조금	2/9℃
전 주	구름 조금	1/7℃
남 원	구름 조금	-1/6℃
흑산도	구름 조금	2/6℃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2.0~3.0m
먼바다	서-북서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2.0~3.0m
먼바다	북서-북	2.0~4.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낮음	관심	보통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1.5~2.5m
먼바다	서-북서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0~2.0m
먼바다	북서-북	2.0~3.0m

	밀물	썰물
목포	02:27 14:45	07:44 19:58
여수	09:31 21:43	03:13 15:30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7(수)	18(목)	19(금)	20(토)	21(일)	22(월)
날 씨						
최저/최고	-2/11	4/10	1/15	3/15	3/9	2/12

약한 황사…기온 뚝 떨어져 '쌀쌀'

16일 광주·전남은 쌀쌀한 가운데 황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황사는 농도가 낮겠으며, 오후부터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6일 광주·전남은 고비사막과 중국 북부지방에서 시작된 약한 황사의 영향을 받겠으며,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종일 쌀쌀할 것"이라고 15일 예보했다.

이번에 찾아온 황사는 지난 1월 25일과 12일 황사에 이어 올 들어 3번째로, 광주·전남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기상청은 전망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0~3도, 낮 최고기온은 7~9도로 전날보다 낮겠으며, 바람까지 거세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아침 기온이 낮게 유지되고 바람까지 거세게 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시설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로스쿨 '특별전형 비리' 25곳 진위 조사

전남대 "문제점 발견 못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험생들이 부모의 경제력을 속여 취약계층한테 배려하는 특별전형에 합격했다는 의혹이 나와 대대적인 진위조사가 이뤄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부모의 부동산과 예금의 명의를 옮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을 낮추는 수법으로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고 로스쿨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전국 25개 로스쿨에 신입생 특별전형 결과를 자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전남대는 교과부가 특별 전형 시 부정 입학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차상위계층 입학자(2009년 8명·2010년 12명)의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